

건강칼럼

한밤중 갑자기 발생한 '고열'

고열을 일으키는 원인?
 고열을 일으키는 원인으로 는 반드시 독감이나 감기만 있는 것은 아니다. 우선 가장 대표적인 게 상기도 감염,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감기로 인한 고열이 가장 흔하나 위장관계 감염, 장염이라는 가 혹은 간담도계 쪽에 감염이 있어서 상복부 복통을 일으키면서 고열·구토 같은 증상이 동반될 수 있다.

또 흔한 원인은 비뇨 생식계 쪽 혈뇨가 나온다가 소변을 볼 때 불편하다거나 통증이 있다거나 심한 경우에는 고열과 동반된 열구리 통증이 있을 수가 있다. 그럴 때는 신우신염 등의 증상 때문에 고열이 발생할 수 있다. 밤에 고열로 응급실을 찾은 경우 대부분 상기도 감염, 요로감염을 의심해 볼 수 있다.

원인에 따른 응급처치?
 체온계로 열을 측정해 38도 이상이면 정량의 해열제를 섭취하고 미온수로 몸을 닦아주어야 한다. 그리고 고열이 물이나 보리차를 자주 먹어 수분을 보충해 주는 것이 좋다. 하지만 해열제를 섭취한 뒤 1시간이 지나도 열이 떨어지지 않는 경우 바로 병원을 찾아야 한다.

소아의 경우 부루펜이나 타이레놀 시럽을 약국에서 구입해 상비해 두

는 것이 좋겠으며 집에서 해열제 정량을 먹인 후에 미지근한 미온수로 몸을 닦아주면서 열을 증발시켜 떨어뜨려줘야 한다. 성인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몸을 약간 시원하게 해주고 해열제를 먹고 물을 많이 마셔 몸이 탈수되는 것을 방지하는 방법이 있겠다.

고열, 무조건 응급실로?
 신생아의 경우 100일 미만의 아이들은 열이 38도 이상이면 대부분 패혈증을 의심해 볼 수 있다. 100일 미만의 아이들은 모체에서 받은 항체를 갖고 있기 때문에 면역체계가 깨지고 심한 세균이나 바이러스로 인한 감염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패혈증에 준해서 검사하고 치료하는 것이 안전하다 할 수 있다.

성인의 경우 고열로 인해 일상생활이 힘들 정도의 지장이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심한 탈수증이

나 무기력증이 있을 때 혹은 응급 처치하는 약들을 섭취 후에도 전혀 효과가 없다면 증상이 악화될 경우 병원을 찾아 고열의 원인을 찾아내고 적절한 치료나 주사가 필요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위장관계 감염 고열일 경우 응급 처치?
 위장관계 감염으로 인한 고열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탈수증이 동반돼 있다. 탈수증의 원인은 고열로 인한 열 손실, 구토나 설사 같은 증상들이 동반되기 때문에 쉽게 탈수증이 오게 된다. 그래서 반드시 수액 치료를 하는 것이 좋고 지사제를 복용하는 것은 주의해야 한다. 지사제를 먹게 되면 장염이 동반됐을 때 설사와 같은 기전 자체가 어느 정도 잠에 있는 열증성 물질들이 몸 밖으로 배출되는 기전의 하나이기 때문에 무조건 설사를 한다

고 설사를 멈추게 지사제를 섭취하면 오히려 장이 더 많이 부풀어 오르고 통증이 심해지며 장염이 심해지는 경우들이 종종 발생한다.

고열 방지 시 후유증?
 열을 빨리 떨어뜨려주지 않게 되면 고열로 인한 심한 탈수증이 올 수 있다. 탈수증이 왔을 때는 가장 먼저 손상 받는 장기가 콩팥이기 때문에 콩팥 부전이 동반될 수 있고, 콩팥 부전이 동반되면 소변량이 줄거나 소변량이 없을 수 있다. 그렇게 되면 투석치료가 필요하게 된다. 또 고열의 원인을 빨리 찾아 적절하게 치료하지 않으면 대부분 패혈증으로 진행될 수 있다. 패혈증은 부분적인 감염으로 인한 증상이 신체 전체적으로 퍼지면서 세균이 전신에 퍼지게 되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혈압이 떨어지게 되고 장기로 가는 혈액량이 줄면서 다발성 장기 손상, 가장 흔하게 콩팥·간·뇌에 손상을 주게 되어 의식이 나빠진다든가 간 기능이 떨어져 간 수치가 많이 올라가 간부전이 생긴다든가 콩팥 부전이 생길 수 있다. 이렇게 되면 다발성 장기 부전증으로 인한 사망 혹은 패혈성 쇼크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고열을 방치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행동이라 할 수 있다.



이권일
 코모병병원 응급의학과 전문의

사설

도지사의 지역발전 행보 기대 크다

도지사의 행보에 기대가 크다. 내년 국비 확보를 위해서 나섰다 는 보도가 주목되는 것이다. 주요 신규사업과 쟁점사업에 대한 예산 반영을 위해 정부의 7개 부처를 방문하는 활동을 벌인다는데 그에 대한 결과가 어찌될지 관심이 크다. 도지사의 그같은 행보는 그에 걸맞은 성과가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발전을 위한 움직임이 지역 곳곳에서 분출하고 있는데 정부 부처가 그걸 모르지는 않을 것이다. 지역 발전을 위한 목소리가 커짐과 동시에 움직임 또한 활발한 게 역력하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주문했던 바가 있다. 지역발전이 항상 중심 주제가 돼야겠다는 그것이다. 지역발전을 중심 주제로 삼지 않고 고사하는지 지역 발전을 기대할 수 없다. 우리 지역은 다른 지역에 비해 낙후돼 있다. 발전하고 있다고는 하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자체 비교일 뿐이다. 그러므로 전북도는 잘 생각해야 한다. 지역 발전을 항상 중심 주제로 해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고서는 지역 발전을 도모한다고 할 수 없다. 다른 지역이 보여주고 있는 것에 비하면 전북의 발전이 미미하다.

도지사의 예산 확보를 위한 행보에 기대가 큰 이유는 분명하다. 내달 5월은 예산 과소반영사업과 미반영사업에 대한 프로젝트가 중요한 때이다. 전북 발전을 위한 사업에 대하여 주목하도록 정부 부처를 설득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신규사업을 위한 예산 확보와 쟁점사업에 대한 예산의 필요 공간은 매우 중요하다. 그러므로 도지사 이하 전북도 고위 브레인들의 책임이 막중하다. 지역의 발전을 견인하는 이들은 비상한 각오를 다져야 한다.

지난 날 여러 번 지적해 왔거나 무스 일이고 진취적인 행보가 소망스럽다. 그리고 말이 났으니 하는 지적이지만 전북의 미래를 약속하고 있는 사업들이 도내에 과연 몇 개나 되는 지 생각해볼 일이다. 그리고 현재 진행중에 있는 새만금사업도 탄소클러스터 조성사업도 식품클러스터 사업도 그 추진 속도가 너무 더디다. 전북 발전을 위해서는 기존사업을 빠르게 추진해야 한다. 그리고 신규 사업과 쟁점사업은 예산 확보를 빨리 확보해야 한다. 그 실현을 위해서 이번에 도지사와 전북도는 뭔가를 보여주었으면 하는 바이다.

삼락농정 반드시 실현돼야

삼락농정의 연륜이 깊지만 아직도 비상한 관심의 대상이다. 그만큼 기대가 크다는 이야기이다. 전북도가 가장 잘할 수 있는 분야에 올인하겠다는 농업분야와 관광분야와 탄소분야 등 3대 핵심 과제를 말한 지도 오래됐다. 세 분야는 어느 게 말하다고 할 수 없을 정도로 중요하다. 그런데 어느 쪽이 더 중요하냐고 누가 묻어 온다면 아무래도 농업 쪽이다. 왜냐하면 우리 전북지역은 전통적으로 오랜 농도인데다 지금도 많은 농가가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전북도가 그 삼락농정으로 농가를 위해 무슨 혜택을 주었는지 물어보고 싶은 요즘이다.

전북도는 그동안 농정 구상들을 발표하면서 농민과 함께 하고 있음을 알렸다. 전북도가 말하는 삼락농정이란 전북도가 발표한 그대로이다. '보람 찾는 농민' '재 찾는 농업' '사람 찾는 농촌'이 그 목표이다. 그리고 전북도는 그걸 열심히 홍보했고 지금도 열심히 홍보 중이다. 그런데 농가들의 현실을 보면 그 홍보가 공감대가 부족하다는 느낌이 든다.

전북도는 삼락농정을 위해서 약속 실천에 충실해야 한다. 150개 쟁점사업을 선정하고 55개 신규사업도 발굴해 모두 532억 원을 투자한다는 방침이 있었는데 그게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 궁금하다. 예산에 본보는 전북도의 삼락농정 비전에 반색하면서도 우려했던 게 있다. 도내 농가들의 현실을 보면 삼락농정의 실현이 말처럼 쉬운 것만은 아니라고 말이다. 오늘날 농업은 다른 산업과 비교해 갈수록 쇠락의 길을 거듭하고 있는 게 사실이다. 농사에 보람을 찾으려는 이가 드물고 농산물이 소비 시장에서 제 값을 받는 경우도 드물다.

전북 농가의 현실이 그러하므로 전북도가 삼락농정 비전을 제시했을 것임은 두 말할 나위가 없다. 그러므로 삼락농정의 목표는 반드시 실현돼야 한다. 그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소비 시장을 유지 확보돼야 한다. 그리고 수출의 경우도 동일하다. 수요자 맞춤형 수출 전략이 계속 필요하다. 그리고 농생명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움직임도 활발해야겠다. 전북도는 농가에 실익되는 쪽으로 삼락농정 행보를 보여야 한다.

독자제언

데이트폭력, 사랑 싸움 아닌 중대한 범죄

근 살인까지 몰고 간 데이트폭력에 관한 뉴스가 쏟아지면서 연인 간 데이트 폭력의 심각성이 대두되고 있듯이 그간 연인 사이의 사랑싸움으로 치부됐던 '데이트 폭력' 범죄가 위협 수위에 이르렀다.

경찰청에 따르면 2.3.~3.31.까지 접수된 데이트폭력 신고 건수는 전국적으로 총 2281건이며, 이중 1806명이 형사입건 되었고 매년 7355건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감겨진 가해자 중 20~30대가 1038명으로 전체의 60%를 차지했으며, 10명 중 6명이 전과자로 피해유형 중 폭행·상해가 63%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였다.

이러한 데이트폭력이 나타나는 원인은 가해자의 잘못된 생각이 대부분으로 본인의 행동이 연인에게 가하는 폭력이라는 의식이 부족하며, 연인에 대한 열등감과 자괴감, 극심한 성격장애 등이 원인으로 꼽힌다. 그 중 가장

대표적인 원인으로서는 가해자가 연인을 소유물로 보는 집착이다. 가해자가 가하는 폭력의 유형으로는 폭행, 성희롱, 성폭행, 협박, 정신적 피해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특히, 성폭행 등 연인사이에서의 성범죄도 모두 성립할 수 있으며 동의 없이 이루어진 성관계는 강간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현재 경찰에서는 4대악과 마찬가지로 사회적 이슈로 대두시켜 데이트 폭력의 확산을 막고,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이런 방침에 따라 각 경찰서마다 '데이트 폭력 전담팀(TF)'을 설치하여 여성·청소년계, 형사계 등으로 구성 된 전담수사요원과 상담 전문여성 등을 배치하였고, 112건 접수 시 피해자 보호를 위해 1차적으로는 접근금지 경고, 2차 피해가능성이 큰 경우 가해자를 구속 수사하는 등 적극 개입하고 있다.

정경란 고청경찰서 모양지구대 순경

독자제언

범죄피해자 신변보호 적극 이용을

인권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으로 헌법 제30조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명·신체에 대한 피해를 받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로부터 구조를 받을 수 있다" 라고 규정되어 있다. 이는 헌법상 기본권으로 대한민국 국민 모두에게 적용되고 평범한 시민은 물론 강력범죄를 저지른 피의자들에게도 보장이 되는 것이다.

과거 수사 사법당국은 가해자 체포 및 엄벌주의로 인해 가해자를 체포·구속하는 것으로 임무가 끝나는 것으로 생각되었지만 범죄로 인한 피해자들은 사건 종결 후 상처를 평생 가슴에 짊어져야 하고 특히 사회적 약자인 여성·장애인 및 성폭력·가정폭력 피해자는 타인과 소통을 거부하는 경우가 많아 심리적 고통을 겪는다.

모든 범죄피해자를 대상으로 해당 재판절차 참여 진술권, 형사절차상 피

해자의 권리, 범죄피해구조금 지급 및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단체 현황 등 범죄피해자의 지원, 그 밖의 권리보호, 복지증진 등의 정보제공을 받을 수 있게 되었고 범죄피해자 보호를 위한 피해자보호전담경찰관도 도입되었다.

피해자 신변보호를 위한 임시숙소 제공을 비롯하여 심야 조사시 교통비 지원, 간식으로 오열된 피해자 주거지 청소비용 보상 등 범죄 피해자에게 유형별 맞춤형 지원이 이루어지고 이외 검찰청에서는 피해자보호제도인 피해자 또는 그 가족의 심리안정과 경제적 도움을 위한 유족 구조금, 중상해 구조금, 이사실비, 그 밖의 의료비와 생계(행정기관), 법률서비스(대한법률구조공단) 지원 등 다양한 기관에서 범죄피해자 보호를 위해 힘쓰고 있다.

양예리 남원경찰서 중앙지구대 순경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인간을 위한 정론지

"더 좋은 신문, 더 사랑 받는 신문, 독자와 함께하는 신문"을 위해 전주매일의 전 직원들은 '전북 최고의 신문'을 제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중앙지를 답습하는 행태를 벗어나 보다 깊이 있게 내 고장 소식을 빠르고 정확히 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당신의 가려움을 속 시원하게 긁어 드리기 위해 대안적 비판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 단계 더 성숙한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지역발전의 수레바퀴를 힘차게 굴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인간중심 · 도덕중심 · 지역중심 **전주매일**